

현민 여러분께

에히메현 지사 나카무라 도키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에히메현 BA.5 의료 위기 선언’ 발표

에히메현에서는 8월 9일에 BA.5 대책 강화 선언을 발표하고,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을 지키기 위해 현민 여러분께 강력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오본(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일본의 명절)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3,000 명을 넘는 등 아직까지 정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지장을 미치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8월 20일, 에히메현 의사회 회장과 에히메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원장과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 현장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음.
- 진료를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응급 진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1~2 주 사이가 고비로, 현민 여러분은 위기감을 가지고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라는 현장의 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8월 31일까지였던 ‘BA.5 대책 강화 선언’의 기한을 연장하고, 행동 제한을 포함한 ‘BA.5 의료 위기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간: 2022년 8월 23일(화)~ 9월 16일 (금)】

현민 여러분께서는 현 내 심각한 감염 상황과 의료 현장의 위기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여, 다시 한번 개개인이 감염 위험을 피하고,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을 지키기 위해, 의료 위기를 피하기 위한 필요 행동을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염을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

- 한 명 한 명이 감염 대책을 강화하기
- 사람과의 접촉 기회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행동 제한하기
- 사람과 만나는 약속이나 외출 약속은 되도록 연기하기

◆추가 대책 강화

①회식 규칙 강화

- 한 테이블당 4명 이하, 테이블 간 이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2 시간 이내 회식으로, 인증점 이용을 추천합니다.

②철저한 이벤트 대책

➢현이 관여하는 집객 이벤트 등은 백신 접종 또는 음성 확인 등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하고, 규모를 축소합니다. 가능한 행사는 연기 및 중지합니다.

③신미칸와리(새로운 미칸 할인)의 신규 예약 접수 중지

➢9 월 16 일까지 신규 예약 접수 중단

◆보건·의료 붕괴 예방에 관한 이해와 협력

①증상에 따른 적절한 의료 진료 및 구급차 이용

➢기저질환이 없는 20 대~40 대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더라도 시판약(해열제 등)을 복용하는 등 자택요양(재택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②건강·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 시스템 이용

➢20~40 대로 중증화 위험이 낮은 경증 환자의 경우,

‘양성자 등록 센터’ (8/26~ 운용 개시)

➢자가 검사 키트에서 양성인 무증상자의 경우,

‘자율요양신고 시스템’

➢양성 확정 진단을 받은 자택 요양 중인 분의 경우,

‘자택요양자 의료상담센터’

③빠른 시일 내 백신 접종

➢고령자는 중증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백신 종류를 불문하고 4 차 접종을 권장

➢5~11 세의 백신 접종은 일본 소아과학회에서도 권장하고 있으며 접종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요청